

청년 시각에서 발굴한 정책제안 발표·소통

전주시, ‘청년정책 특·제10기 청년희망단 정책제안 발표회’ 열려

청년의 시각에서 전주시 청년 문제를 발굴하고, 청년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온 ‘제10기 전주시 청년희망단’이 한자리에 모여 활동 내용을 공유했다.

전주시는 지난 24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교육실에서 청년들의 주도적인 시청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청년정책 특(talk)’ 및 청년희망단 정책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청년정책 특(talk)’과 청년들이 직접 발굴한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청년희망단 정책제안 발표 및 심사, 소통의 시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정책 제안은 제10기 청년희망단이 지난 1월 발대식 이후 5개월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며, 역량 강화 교육·워크숍·현장방문 및 월 2회 내외의 분과 회의와 멘토링 등의 과정을 거쳐 분과별로 도출한 결과물이다.

구체적으로 이날 발표회에서는 △청

년 창업자 팝업스토어 지원사업 △전주시 1인가구 및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안심동행서비스 △산모를 위한 건강반찬 꾸러미 지원사업 △전주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등 총 5건의 정책이 제안됐다.

이에 시는 사업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전문 심사 위원과 현장에 참여한 청년심사위원들과 함께 제안된 정책을 평가했으며, 최우수·우수·장려 정책 등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팀에게는 청년희망단 해단식에

서 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청년의 시각에서 발굴·제안된 정책의 사업화율을 높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청년참여예산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으로, 제안된 사업은 소관부서에서 실행 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영숙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 정책을 직접 디자인하는 주체로 서는 뜻깊은 자리”라며 “청년희망단의 제안이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외국인주민 축제 ‘와다다다 축제’

전주시가족센터,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지역주민등화합·교류

전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해경)가 전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려 화합하는 축제를 열었다.

전주시가족센터는 지난 2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일원에서 전주시지역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일반 주민 500여 명이 함께 하는 2026년 외국인주민 축제 ‘와다다다 축제’를 개최했다.

‘와~ 다양한 구성원이 다함께 다 모이는 축제’라는 의미를 담은 ‘와다다다’ 축제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화합하는 교류의 장으로 꾸며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물(水)만난 우리가족! 수(水)상한 페스티벌’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사전 체험 부스를 시작으로 마술 공연과 댄스, 어린이뮤지컬 공연, 20여 가정이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오징어게임’ 등이 이어졌다.

이어 점심 식사 이후에는 아쿠아

수영장 및 서바이벌 물총 대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참여자들에게 한여름 무더위를 식히는 즐거운 시간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가족센터는 축제 다음날인 26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내외국인이 서로 각국의 문화를 교류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전주 글로벌 문화행사 ‘투게더in전주’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투게더in전주’의 2번째 국가인 네पाल의 전통놀이 및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200여 명의 네पाल 유학생과 외국인 주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해 네पाल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시와 전주시가족센터는 이번 축제를 통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주민과 상호 이해와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통합돌봄 현장 간담회 열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전주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

정은경 장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통합돌봄 선도도시인 전주를 찾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전주시는 지난 24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및 통합돌봄 간담회’에 참석해 사업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

업’은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과 지역사회 내 거주 권리를 위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내 독립생활 가능한 주거, 고용, 복지서비스 등 통합적 자립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과 지역사회 내 거주 권리 보장을 위해 주거·고용·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해 왔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35명의 장애인이 자립에 성공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대표 강현석)는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 시는 지난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사업의 내실을 인정받기도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담회 이후에는 평화동 자립지원주택을 직접 방문해 자립에 성공한 장애인 가정의 의견을 경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통합돌봄 확대 기초에 발맞춰 기존 노인 중심의 통합돌봄에서 장애인 통합돌봄까지 확대해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기반의 종합적 돌봄 체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라며 “전주시는 앞으로도 주거, 의료, 돌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오늘부터 전주역 후면주차장 이용하세요” 전주시, 공공기관 채용 정보 통합 제공 서비스 성과

전주시, 기존 전면 임시주차장 운영 종료… 주차 편의 향상 기대

전주시는 전주역사 개선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전주역 후면주차장이 개방되고, 기존 전면 임시주차장 운영이 종료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역 이용객은 기존 전면 임시주차장 대신 전주역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후면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새롭게 개방되는 후면주차장은 총 382면 규모로, 기존 전면 임시주차장(151면)보다 231면이 늘어나 철도 이용객과 방문객의 주차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후면주차장과 함께 선상연결통로도 개방돼 사전에 승차권을 예매한 이용객은 역사를 거치지 않고도 승강장(플랫폼)까지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시는 주차장 위치 변경으로 인한 이

용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역할을 분담해 전주역 인근 동부대로와 백제대로 등 주요 도로와 역사, 전면주차장 내에 현수막·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코레일북과 전주시 누리집, SNS, 시내버스 정류장 BRT, 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주차장 운영 변경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 개방 당일에는 교통혼잡에 대비해 현장 안내 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백미영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7월 27일부터 후면주차장과 선상연결통로가 개방되면서 전주역 이용객들의 주차와 이동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차장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역사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가 구직 청년들을 위해 올해 초부터 시행한 산하 기관 채용 정보 통합 제공 서비스 ‘모아-JOB’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상반기 동안 전주청년은라인플랫폼 ‘청정지대’ 내 ‘모아-JOB’게시판을 운영한 결과 총 1235명 규모의 전주시 산하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채용 정보를 통합 제공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모아-JOB’ 게시판은 지난 1월 첫 게시 후 지속적인 관심에 따른 방문이 증가하면서 누적 조회수가 약 9000회에 달하며 지역 청년들의 공공부문 취업 정보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모아-JOB’은 청년들이 공공부문 채용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 기관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기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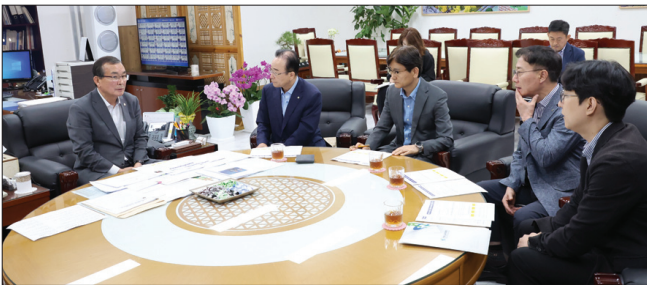
시는 시 산하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출연·민간위탁기관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전주시지역 정부기관 채용 정보까지 한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더 넓은 범위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시는 잡알리오·고용24·사람인 등 민·관 구직플랫폼과 ‘청정지대’와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청정지대’ 방문으로도 주요 플랫폼에 올라오는 전주시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진선 전주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상반기 동안 ‘모아-JOB’을 통해 많은 청년이 분산돼 있던 공공부문 취업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면서 “하반기에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플랫폼 기능을 개선하고, 취업 기회를 놓치는 청년들이 없도록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의회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및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상호 협력 논의

전주시의회·전북신용보증재단

전주시의회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및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23일 의정실에서 최주만 의장과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보에 대표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경영난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종보 이사장은 “지역 내 소상공인

과 자영업자가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금융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며 “전주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주만 의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계신 전북신용보증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전북신용보증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 마련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